신안 미래 주역들, 역사 현장서 ‘인권·리더십’ 체득

군,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아카데미’ 운영
광주 5·18민주묘지·전일빌딩245·군산시 일원 등 탐방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여정이 마무리됐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시와 군산시 일원에서 ‘2025 신안군 청소년 인권+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했다.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인권센터가 협력해 진행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키워주는 ‘민주시민아카데미’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 17명과 지도자 5명 등 총 2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론 교육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가 새겨진 역사적 현장을 직접 찾았다.

첫 일정은 국립 5·18 민주묘지 탐방이었다. 청소년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아픔과 숭고한 정신이 깃든 현장을 걸으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슴으로 느꼈다. 이어진 전일빌딩 245 탐방에서는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워크숍은 단순한 역사 탐방에 그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솔로몬로 파크에서 모의재판에 참여하며 인권 리더십을 직접 체험했다. 재판 절차를 경험하며 자신의 권리와 더불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을 동시에 학습했다. 또 군산으로 이동해 군산 타임로드 동행투어를 통해 근대 역사의 흐름을 익히고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한 참여 청소년은 “책으로만 보던 5·18 민주묘지를 직접 방문하니 민주주의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모의재판을 통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앞으로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 대해 “청소년들이 역사와 인권의 현장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인권 감수성 향상과 리더십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며 “이번 행사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시와 군산시 일원에서 ‘2025 신안군 청소년 인권+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은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는 모습.

이어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안군은 체험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무안,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실증 자료 등 주효…사업비 492억원 확보
배수펌프장 신설 등 침수 대응 인프라 강화

무안군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92억원(국비 296억원 포함)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무안읍 성남리 일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기반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사업비 497억원)과 병행을 통한 시너지를 발휘해 효과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갖출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무안읍 성남리 일대는 보건소, 승달문화예술회관, 상가, 주거단지 등이 밀집한 저지대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마다 하수관로 용량 부족과 지형적 한계로 인해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특히 지난 8월 3일에는 시간당 113.5㎜의 폭우로 인해 건물 79개소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피해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주민·소상공인의 재산 피해와 도시기능 저하를 초래해왔다.

무안군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9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군은 피해원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착수해 지난 8월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서삼석 국회의원과 소통·협력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아 계획을 고도화시켰다. 이에 따른 치밀한 계획과 현장 기반의 실증 자료, 침수 시뮬레이션 결과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 삼아 선정이 확정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배수펌프장 신설, 우수 유입 개선을 통해 하수관로 기능을 향상시키고 빗물의 신속한 배제·침수예방 능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침수 대응 인프라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침수예방사업과 지난해 선정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연계해 무안읍 일대의 침수 피해를 완전히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 무안군 전역의 하수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완도군은 최근 전국화학연맹 오비맥주 노동조합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 전국화학연맹 오비맥주 노조와 협약

해양치유산업 활성화·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협력

완도군은 최근 전국화학연맹 오비맥주 노동조합(위원장 박태욱)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박태욱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완도군의 해양치유산업 육성과 국제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오비맥주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심신 치유와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양치유산업 홍보와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협조 체계 구축,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 등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노동자의 쉼은 곧 사회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기업·노조와 협력을 통해 해양치유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태욱 위원장은 “완도군이 역점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과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조합원과 가족들의 건강한 삶과 휴식을 위해 완도해양치유센터의 질 높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남, 전국 첫 지원사업 시행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어업분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사업은 기존 개별 어가와 외국인근로자간 근로계약 후 5~8개월 동안 해당 어가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에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협에서 일손이 필요한 어가에 일당제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무·안전교육을 거쳐 올 3일부터 어가 투입을 시작해 내년 4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3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어업분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첫 시행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촌인력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으면 한다”며 “해남군 수협과 긴밀히 협의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영암 “해상풍력 터빈부품 특화단지 추진”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영암군은 해상풍력 터빈 부품과 운영·유지보수 기자재를 생산하는 특화단지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최근 청사에서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올해 5월부터 진행된 이번 용역은 영암에 해상풍력 기자재 특화단지를 조성해 국토 서남해안 일대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생산-납품-관리하는 전주기 공급체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게 타당한지에 대해 분석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은 국내·외 해상풍력 산업동향과 영암군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핵심 기자재 분야로 터빈부품(피치·요 베어링, 변압기 등), 운영·유지보수(O&M) 산업 등을 제시했다.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이런 제안에 대해 사업 추진 시 영암군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고, 내년 신규 국고사업 반영을 위해서는 행정절차 수립 등 세부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정부 건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 ‘제4기 수소도시’에 지정된 영암군은 수소도시에 해상풍력 산업까지 연결해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생산에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RE100산업단지 지정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진도, 2025년산 공공비축미 전남 첫 매입

3년 연속 광주·전남 특등비율 1위 도전

진도군은 최근 군내면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을 시작하며 공공비축미 수매의 첫 문을 열었다.

이번 매입에는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과 진도사무소장 등 관계기관과 지역 농업인 50명이 참여했다.

올해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강대찬’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 검사 후 매입이 진행됐다.

군은 지난 2023년부터 2년 연속으로 ‘광주, 전남 특등비율 1위’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3년 연속 1위 달성’을 목표로 건조벼, 친환경벼, 가루쌀 등 총 25만3217포대(40㎏ 포대)를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2025년산 공공비축미의 매입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확정되며, 매입 직후에는 포대(40㎏)당 4만원의 중간 정산금이 지급되고, 최종 정산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희수 군수는 “진도군은 지난 2년 동안 공공비축미 특등비율 ‘광주, 전남 1위’를 차지했다”며 “올해도 3년 연속 1위를 달성해 그 명성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